

후방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한 세가지 방법의 임상결과 비교

김성재, 김태언, 조승배, 궁윤배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교실

배경

술기적인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후방십자인대의 관절경하 경골 inlay방법이 경경골(transtibial)방법에 비해 생역학적인 장점을 갖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관절경하 경골 inlay방법의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중 단일다발과 이중다발 방법의 임상적 결과를 각각 기존의 경경골방법 및 단일다발을 사용한 재건술군과 비교하였다.

방법

저자들은 후방십자인대 단독 재건술을 시행받고 2년이상 추시관찰이 가능했던 2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. 경경골방법 및 단일다발을 사용한 재건술군의 환자가 8명, 관절경하 경골 inlay방법 및 단일다발을 사용한 재건술군이 11명, 관절경하 경골 inlay방법 및 이중다발을 사용한 재건술군이 10명이었다. 모든 환자에서 동종 아킬레스건을 이용하였고 Lysholm 슬관절점수, Telos 스트레스방사선 사진으로 측정한 경골 후방전위의 건축과의 차이, 슬관절 운동범위의 건축과의 차이를 조사하였다.

결과

관절경하 경골 inlay방법 및 이중다발을 사용한 재건술군의 경골 후방전위의 건축과의 차이가 $3.6\text{mm} \pm 1.43\text{mm}$ 이었고 경경골방법 및 단일다발을 사용한 재건술군의 $5.6\text{mm} \pm 2.00\text{mm}$ 보다 통계적 의의가 있는 차이를 보였다($p=0.023$). 반면, 관절경하 경골 inlay방법 및 단일다발을 사용한 재건술군에서는 $4.7\text{mm} \pm 1.62\text{mm}$ 로 경경골방법 및 단일다발을 사용한 재건술군과 차이가 없었다($p=0.374$). 슬관절 운동범위 및 Lysholm 점수는 관절경하 경골 inlay방법을 사용한 단일다발군 및 이중다발군 모두에서 경경골방법 및 단일다발을 사용한 재건술군과 차이가 없었다.

결론

관절경하 경골 inlay방법 및 이중다발을 사용한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이 술기적으로 어려운 점은 있으나 기존의 경경골방법 및 단일다발을 사용한 재건술에 비해 경골 후방전위의 안정성이 우수하여 저자들의 선호하는 방법이다.